

한국사회를 위한 ‘청년학’ : 왜 필요한가?

김 원식

건국대 교수

한반도선진화재단

2016. 6. 23



목차

- I. 서론
- II. 현황
- III. 청년학의 방향
- IV. 결론

I. 서론



서론: 청년학 정의

- 청년(靑年) vs 노인
 - 주인 主 + 달 月
 - 노인: 흙 土 + 변화 化
- 청년학 (Neostology) vs 노인학 (Gerontology)
 - Youth (νεολαία) + rule (tology)
 - Old (geron) + rule (tology)
 - 청년학: 출생 이후 독립적 청년이 되기까지의 연구
 - 노인학: 고령 이후 사망하기까지의 연구
 - 청년학의 개념: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책임있는 독립적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환경 개선과 적극적 지원(support), 보호, 비전, 생애계획 중심
 - 노인학의 개념: 개인의 과거에 관계없이 노인 당사자들의 이해와 보호, decent 종말을 위한 보호(care)
 - 청년은 정치적 비주류

서론: 지금 왜?, '청년학'이 필요한가?

- 현재의 청년 vs 과거의 청년
 - Highly educated
 - Smart
 - Bright
 - Live longer etc.
 - 현재의 노인과 과거의 노인
 - 높은 교육수준, 높은 건강수준, 다양한 노인계층 증가
- 고령사회
 - 100세 시대
 - 204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20세 (2045년 미래사회@인터넷, 한국인터넷진흥원)
 - 어떻게 고령사회의 덫에서 빠져나올 것인가?
- 저성장
 - 인적자원의 낭비: 방황하는 청년들 45만명과 청년실업률 10%
- 양극화
 - 빈곤의 세습: 교육
 - 세대간 갈등
- '청년문제의 해결'과 '청년사회의 진화'를 통한 지속가능한 선진사회 구축

서론: 청년정책의 문제점

- 청년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침.
 - 근본적 해결 없음.
- 청년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으로 인식
 -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님.
- 개인/민간의 영역으로 인식
 - 청년은 사회적 투자 대상이고, 사회발전의 핵심 자원임.
- 인권적 문제로 인식
 -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임.
- 산업사회의 인력으로 인식
 - 지식사회임.

II. 현황



청년 현실

- 방황하는 10대: 비취학청소년 43만명
- 청년실업
 - 최고의 청년실업률 10.9% vs 전체실업률 3.7% (2016.5)
 - 청년 체감실업률 10.8%
- 비정규직 양산
 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: 20%대
 - OECD국가 중 최저
 -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소득격차 확대
- 고용환경의 악화
 - 비정규직법: 비정규직 증가
 - 최저임금법: 임금하락, 청년실업 증가
 - 열정페이
 - 무상복지: 빈곤율 상승

청년 현실

-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늦은 사회진출
 - 결혼, 출산, 주택 포기
- 사회적으로 고령층 부양자
 - 청년으로부터 노인으로 부의 이전 확대/ 역진적
 - 가정에서는 피부양자
- 불확실한 미래사회
 - 사회적/국가적 활력 상실
 - 청년층 환상/ 좌절
 - 청년특성 상실
 - 지속가능한 성장성 쇠퇴

청년 인식

- 과거세대보다 공평한 사회의식
 - 기성세대보다 폭 넓은 이해
- 존중요구/ 경쟁기피 (경향신문)
- 고령화에 대비한 Lifetime adjust model 부재
 - 경제/금융 교육 부재
- 켄거루족/returoo족, NEET족, 혼족 etc.
- 가치관 변화
 - 유교적 가치관 감소: 개인중심, 부모 자녀 관계 이완
 - 사회적 기여?
 - 세계관?

청년 인식(청년설문)

- 정부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치 순위(경향신문, 2015.12.31)
 - 최상위: 존엄성
 - 2위 이후: 신뢰, 공정성, 투명성, 책임성 소통 등
 - 최하위: 경쟁
 - 우리사회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경쟁, 경쟁력임.
- 대한민국의 청년의제 순위(경향신문, 2016.12.31)
 - 일과 삶의 균형; 여가 및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노동분화
 - 학력 경쟁 중심사회
 - 건강 안전 환경에너지 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해결
 - 세대 지역 계층에 따른 정치적 갈등
 - 국민행복지수 도입
 - 청년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 지체
 -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증세

청년 현실: 생각

- 미래실현을 위한 의견 조력자순(경향신문, 2015.12.31)
 - 친구(65.9%), 교사 교수(43.2%), 사회지인(40.9%), 가족(25%), 온라인지인(15.9%), 종교인(4.5%)
-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따른 평가
 - 아픈 청춘
 - 도덕적 공황장애인
 -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

청년정책 현실: 생애관리

- 청년들의 생애단계별 생애관리 부실
 - 30세 사회진출/ 35세 남성결혼 /32세 여성결혼
 - 대학재수, 군입대, 해외연수, 졸업연기, 취업재수
 - 49세 장기직장에서 은퇴/ 감소 중
 - 73세 건강나이/ 증가 중
 - 90세 최빈 사망연령/ 증가 중
- 개인 vs 가족
 - 입증된 가장 생산적인 사회시스템
 - 가족형태의 변화: 핵가족화, 비혼, 미혼 증가
- 왜 더 문제인가?
 - 청년들의 빈곤화
 - 청년들의 국제경쟁력 저하: 능력과 의지
 -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국내기업들의 세계진출보다 많은 다국적사들의 국내 진출
 - 수출국가에서 내수국가로
 - 국제적 사회경제 기준으로부터 이탈 중
 - 저출산
 - 학습능력 저하
 - 노동시장 경직화

III. 청년학의 방향

청년정책의 문제

- 청년고용대책의 실효성
 - 139개 사업
 - 청년 일자리 사업: 2조1천억원/ 57개 사업 (2015)
- 낮은 정치참여율로 인한 청년정책 부실
 - 낮은 투표율
-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
- 낙후되고 폐쇄적인 교육시스템/ 질적 성과 저하
- 범사회적으로 비효율적 인력 양성시스템
-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자 중심의 정책 편중
 - 포퓰리즘
- 청년에 대한 감성적 사회적 대응/ 언론, 지식인 등
- 청년에 대한 형식적 정책 대응
 - 개념적 청년 인권신장
 - 형식적 기회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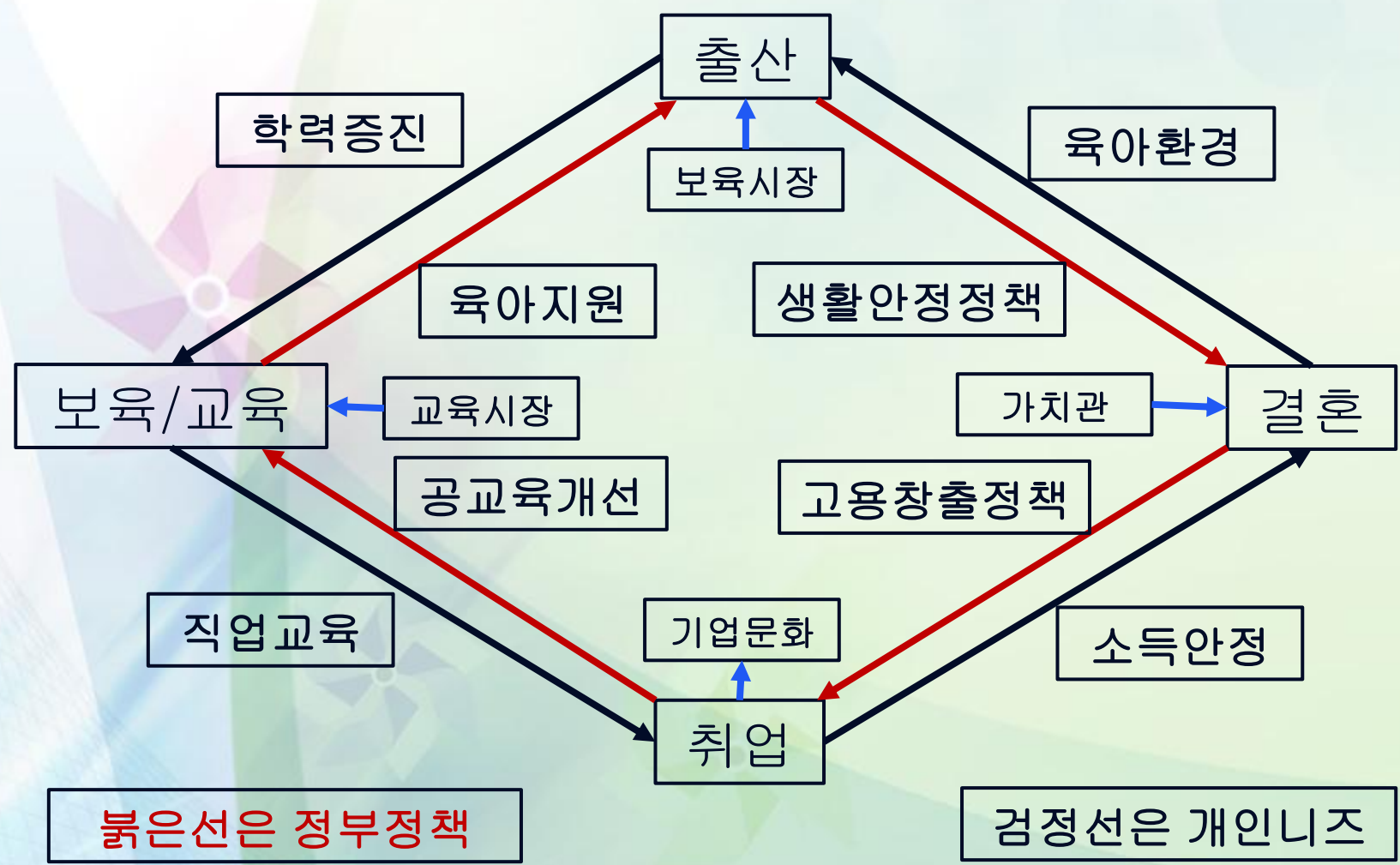
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

- 청년의 현실은 청년정책의 실패를 반영함.
 - 경쟁력 저하
 - 창조성 부족
 - 적응력 저하/ 좌절
- 청년정책은 성장과정에서 단절이 있으면 안됨
 - 청년 본인의 출산, 육아, 교육은 부모의 책임, 취업, 결혼, 2세 출산과 육아는 청년 본인의 책임.
 - 성장과정의 투자가 단절되면 모든 투자는 sunk화함.
- 청년정책은 사회개발정책임: 복지정책 아님/ 노인정책은 복지정책임.
 -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질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.
 - 보육시설, 교육수준, 급식정책 등
 - 청년 대상 서비스의 질적 격차는 계층간 갈등의 요소임: 계층간 평준화 추구
 - 경제성장에 따라 질적 수준 욕구 상승.
 - 청년정책은 서비스중심 정책임/ 지출중심 정책 아님.
- 청년정책의 실패(예, 청년실업)는 세대간 영역간 다면적 rent-seeking의 결과임.
 - 특히, 노동시장에서 기성세대의 이기심
- 출산, 육아, 교육, 취업 등 Zero-base에서 모든 정책대안을 검토해야 함.

청년 정책의 재평가: 다면적 관점(철학, 역사, 경제 등)

- 출산
- 보육
- 교육
 - 초등
 - 중등
 - 고등
- 질병
- 취업
- 결혼
- 육아

청년학 구조



청년학: 한반도 자원의 현황

- 경쟁국에 비교한 인적 경쟁력 격차 축소 중
- 중국 일본이 인접한 동아시아에서 생존해 온 역사성 인식 부족
 - 반일 반독재의 역사만 존재
 - 국가의 역사책 실종: 존재 없음.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의 문제 아님.
 - 국가이념 포함 다양한 분야별 역사 있어야 함.
- 삼면 바다의 해양국가: 활용도 낮음
- 화교나 유태인보다 못 한 글로벌 인력 풀/조직: 해외인력 배척
- 사회적 응집력 저하: 심각한 다중적 exclusion
- 북한지역의 잠재적 경제가치 배제: 통일 후 북한의 경제활동인력 풀 양성 부재
- 동남아 국가 등 새로운 경쟁자들의 부상

청년학: 가치관

- 역사인식 개선
 - 역사 인식 없는 한국 교육
 - 단군/ 홍익인간의 역사관
-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
 - 국내 대학간 우선 교류 후 해외 대학 교류
 - 국내 대학은 폐쇄주의
- 거꾸로도 보는 한반도 지도: 대륙국가이면서 해양국가로
- 한류와 한민족의 허브(hub)
 - 더 이상 영토패권주의는 없다.
- 세계화
 - 완전 경제규제 자유지역 지향

청년학: 국가모델 구축

- 청년을 위한 한반도 국가모델?
 - 이스라엘: 신앙/생존
 - 싱가포르: 실용
 - 네델란드: 개방
 - 스웨덴: 공동체, 넓은 자원의 국가
 - 한반도: ?

청년학, 무엇을 해야 하나?: 어디에 쓰나?

- 고령사회의 종식: Free from Aging Society
 - 고령사회의 정의를 바꿈
 - 청년의 기회 보장
 - 교육
 - 취업
 - 양육
 - 청년의 도전정신
 - 역사관
 - 철학관
 - 자부심
 - 청년부터 퇴직 준비해야 함.
-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
 - 경쟁력 제고
- 청년은 한반도 통일의 필수 자원

IV. 결론



결론: 청년학

- 청년학의 목표
 - 청년들의 창조, 혁신, 적응력 회복하게 함.
 - 청년들이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함양하게 함.
 - 청년들을 글로벌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범사회적으로 노력함.
 -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 마련 및 지원
 -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의 새시대를 열도록 함.
- 청년학포럼 헌장(안)
 - 우리 청년들을 글로벌 사회의 핵심적 주역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한다.
 -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사회를 활성화시킨다.
 - 청년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해소하는데 정치 사회적 역량을 실천으로 이끈다.
 - 비이념화, 비정치화, 비정당화를 추구하고, 실용주의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.

청년학의 의의

- 청년학은 교육, 복지, 노동, 정치, 철학, 역사 등을 망라한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함.
- 청년학은 개념적 논쟁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가설에 기초한 정책을 연구함.
- 청년정책은 선진화정책이며 복지정책 아님: 청년학은 사회개발의 필수 학문이면서 경제성장의 최우선 융합학문임.
 - 성장정책
 -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
 - 국가자원의 효율성 극대화
 - 정책비용의 최소화
 - 기회보장정책
 - 공평한 기회
 - Max[min]
 - 양극화
 - 중산층 육성
 - 사회정책
 - 선진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
 - 글로벌 성장/ 문화창달에 기여

청년학의 사회경제적 효과

- 고령사회의 종식
- 지속적 성장
- 통일한국의 번영
- 세계화 재도약

부록. 청년학 포럼 운영방안

청년학 포럼 운영방향(안)

- 기간: 3년 (2016.6-2019.5)
 - 1년차: Idea/이념 공유
 - 2년차: 정책 방향 설정
 - 3년차: 정책 실현을 위한 연대 형성 모색
- 목적: 각 영역별 올바른 새시대 청년상을 창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.
- 발제에 기초한 논의
 - 영역별: 경제, 경영, 문학, 사회, 역사, 철학 등
 - 대중성 있는 보고서 발간
- 정책방향설정:
 - 정책패러다임의 개혁
 - 근본적 개혁: It's time to act.
 - 지원과 제도: 제도 중심/ Money is not everything.
 - 땀, 인내, 고통을 통한 재탄생

청년학 포럼 운영방향(안)

- 운영위조직
 - 청년분과
 - 멘토분과
 - 재능기부분과
 - 철학(가치관)분과
 - 정책분과



Thank, you for your attention!